

'아이처럼 살다'

2016, 전주에서 이오덕 · 권정생 · 하이타니 겐지로를 만나다

특별전시회

4.1-5.13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월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강연과 이야기 마당

강연 4월 7일, 4월 14일, 4월 21일(목) 저녁 7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2층 노래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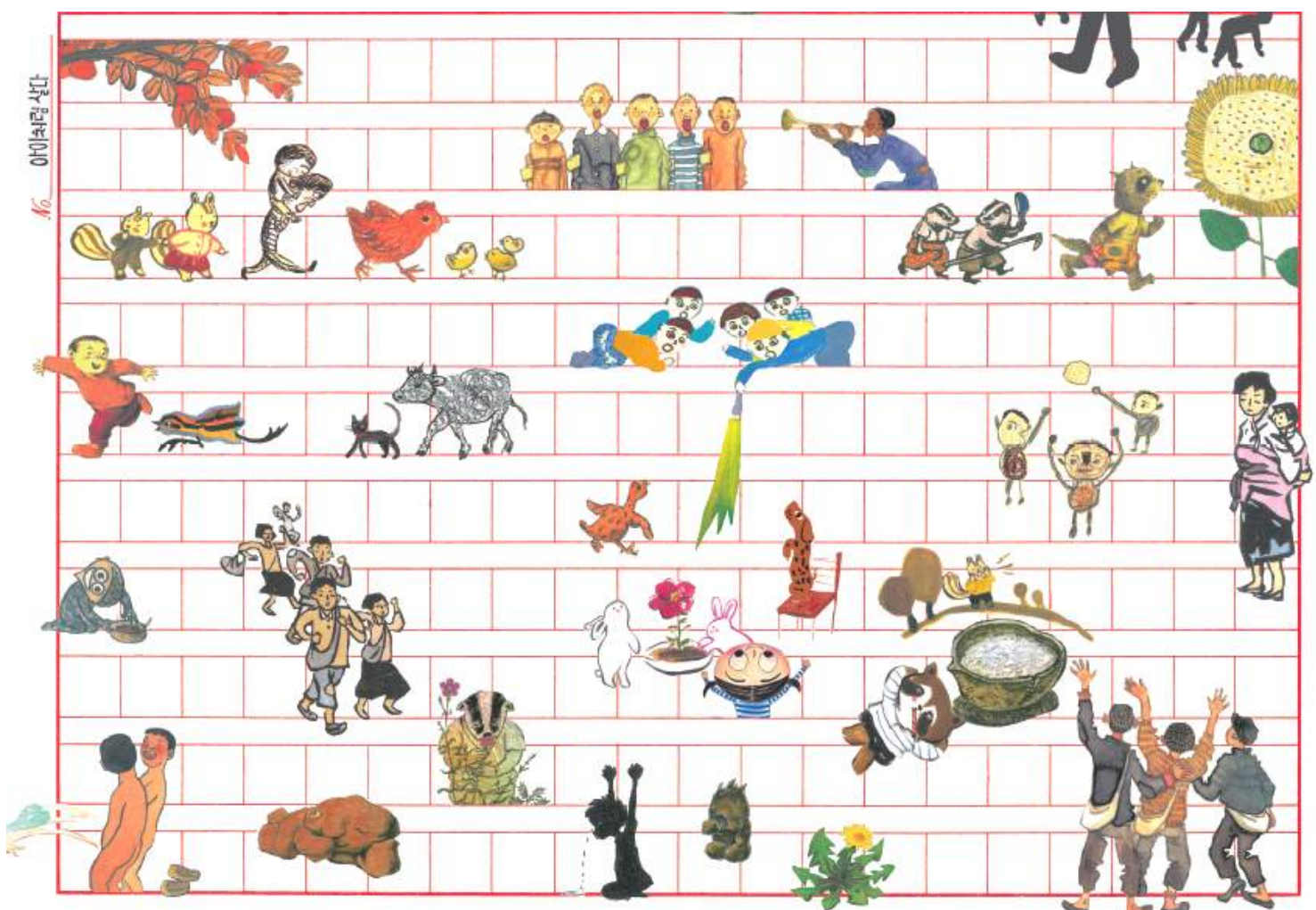
이야기 마당 4월 30일(토) 오후 2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2층 노래교실



큰 삶을 아이처럼 살다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시를 쓰고,
그래서 아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아이의 아이에서 어른은 어른이어서 감동한 세상이기를 바라며,
아이의 마음으로 두 눈을 살리고 말을 건넵니다.



아이처럼 살다



주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후원 전라북도교육청 이오덕학교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하이타니겐지로사무소 전북글쓰기회 길벗어린이 양철북 청비

이오덕 · 권정생 · 하이타니 겐지로의 책들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강아지와 염소 새끼 창비



거꾸로 사는 재미 산처럼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양철북



내가 만난 아이들 양철북



내가 무슨 선생 노릇을 했다고 삼인



너는 닥스 선생님이 싫으냐 비등소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우리교육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양철북



랑랑별 때때롱 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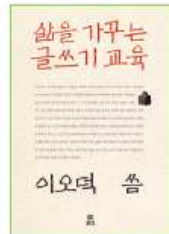
몽실언니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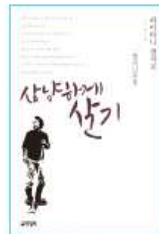
별똥별 창비



발뱅이 언덕 창비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이오덕 쏘



상냥하게 살기 양철북



선생님 내 부하 해



소녀의 마음 양철북



시정신과 유희정신



신나는 글쓰기 자식산업사



어린이를 살리는 글쓰기 우리교육



아기너구리네 봄맞이 길벗어린이



엄마 까투리 낮은신



아기소나무와 관장님 동해나라 문진주니어



오소리네 집 꽃밭 길벗어린이



우리글 바로쓰기 한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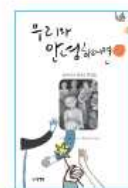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우리 문장 쓰기 한길사



우리 선생님 최고 논장



우리와 안녕하려면 양철북



선생님, 요즘은 어따하신나 양철북



이오덕 일기 양철북



일하는 아이들 보리



태양의 아이 양철북



하느님의 눈물 산하



한티재 하늘 1,2 자식산업사



황소 아저씨 길벗어린이

강연과 이야기 마당 안내

이오덕 · 권정생 · 하이타니 겐지로의 어떻게 살았을까?

4월 7일(목)	이오덕은 어떻게 살았을까	강연 이송희
4월 14일(목)	권정생은 어떻게 살았을까	강연 이혜숙
4월 21일(목)	하이타니 겐지로의 어떻게 살았을까	강연 조재은
4월 30일(토)	이오덕 · 권정생 · 하이타니 겐지로 이야기 마당	
사회 윤일호, 토론 이주영, 박선미, 주순영, 김순용		

장소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2층 노래교실
 참여 신청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http://www.jec.go.kr/>)
 전화 문의 063-270-1647

주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후원 전라북도교육청 이오덕학교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하이타니 겐지로사무소 전북글쓰기회 길벗어린이 양철북 창비



이오덕(1925-2003)은 온 삶을 아이들과 함께했고, 아이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랐다. '자기 삶은 모든 사람의 삶에 이어져야 한다'는 시인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권정생(1937-2007)은 '강아지 똥'으로 세상에 온 사람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눈길로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평생 아이들의 동무로 살았다.



하이타니 겐지로(1934-2006)의 삶은 '어린이'와 '문학'을 떼어 놓을 수 없다. 그의 인생은 '좀 더 인간적인 인간이 되는 길을 찾고 고민하며 살아온 배움'의 과정이었다.

